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9. 1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함께해요!



- 일 시 : 11월 28일(목) 오전 9시 ~ 오후 4시
- 장 소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
- 나눔 대상자 : 홀로어르신,
장애인 500여 가구에 15kg씩 나눔

- 내 용 : 11월 28일(목) 9시 30분부터 배춧속 양념 넣기, 포장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전 7시에 오셔서 배추 하차 지원해주실 남자 봉사자 일손이 필요합니다.)
- 참여 대상 :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개인 봉사자
- 준비물 :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일하기 편하고 따뜻한 복장
- 활동 혜택 : 점심 제공, 봉사활동인증서 발급(필요시)
- 봉사 참여를 미리 접수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업체, 단체 봉사 참여는 받지 않습니다.
- 당일 김장 관계로 길상사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 후원 동참 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02.741-4696 / www.clean94.or.kr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9 / 11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원래 내 것이란 없고 잠시 맡아 있는 것일 뿐 ①
길상화 보살 타계 20주기	10	길상화 보살 49재 천도 발원문
산다는 것 그린다는 것	13	술과 담배와 인생
길상사 시간여행	17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책 - ③
아름다운 마무리	24	11월 결연 대상자 - 이형태(가명)
특별기고	26	생명의 소중함
인권 아단법석	31	어느 인권 강사의 고백
따뜻한 이야기	34	꽃 속의 사막
향기나는 우체통 ①	36	세계 일주 시작이 반
향기나는 우체통 ②	38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1	
길상사 소식	49	



• 이가은 「不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발행 / 통권 297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원래 내 것이란 없고 잠시 맡아 있는 것일 뿐 ①

글·법 정(法 頂)

자연과 가까이 사니 세속의 때가 벗겨지더라

사회 : 두 분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전기도 전하기도 없는 강원도 산골 화전민촌에 들어가서 사신다고 들었고, 또 장익 주교님 역시 94년 이후 강원도에서 춘천 교구장으로 계시니 두 분이 20여 년간 특별한 친분을 나눠오신 것과 더불어 인연이라면 참으로 깊은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그곳 생활 좀 얘기해주시지요.

법정 : 송광사 불일암에서 10여 년 살면서 수도생활을 하다보니 중노릇이 너무 단조로워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요량으로 그곳을 찾았는데, 떠나서 살아보니 문명의 이기가 없는 것

이 오히려 다행이다 싶습니다. 전기나 전화 같은 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편합니다. 아니 이제는 오히려 바깥 세상에 나오면 전등불이 너무 밝고 전화벨 소리가 아주 신경을 곤두서게 합니다. 명색이 수행자라고 하면서 이름이 팔려 너무 번잡하게 살다가 자연과 가까이 사니까 내 안에 묵은 때가 벗겨지는 것도 같고, 또 자연으로부터 얻은 교훈과 배움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일꾼들 몇 명과 새 방을 꾸미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장익 : 본당과 공소를 포함해 1백여 군데를 올해 들어 세 번째 방문하면서 무엇보다 여러 공동체를 사귀고 알

게 돼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강원도라고 하면 예전에 그저 놀러다니기만 해서 생소한 곳인데 이제는 그곳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려 노력합니다.

법정 : 서울 봉은사 다래현에 있을 때 아는 스님이 그려준 묵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에 돌과 난초가 그려진 단순한 그림이었는데 '고고봉정립심심해저림'라는, 때로는 높이높이 뒤틀리 위에 솟아오르고, 때로는 깊이깊이 바다 밑에 잠기라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주교님 마음에 든다고 해서 떼어드린 일이 생각납니다.

지금 강원도에 살고 있는 것도 그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번다하게 살다보니까 너무 노출되고 오염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디엔가 묻혀서 덜 노출되고 자신의 잠재력을 더 일깨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깊이깊이 바다밑에 잠기려는 것인지도 모르

겠습니다.

장익 : 그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때 다래현에 갔을 때, 벽에 표구도 없이 압정으로 붙여놓은 그 그림이 자꾸 눈길을 끌었어요. 연신 쳐다보았더니 스님이 서슴없이 떼어서 주시길래 고맙기도 하고 당황도 하고 한편으로는 탄복도 했습니다.

사회 : 부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들 합니다. 2천 5백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참 뜻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법정 :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단순한 한 생명의 탄생이겠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지요. 흔히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들 말합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중생은 미자각 상태를

말하고, 보살이란 자각된 인격을 일컫는데, 중생이 몸을 받을 때는 업력수생, 즉 자신이 평소에 행동하고 마음 먹고 입으로 말한 업력에 의해 몸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살은 원력수생, 즉 소망이라고 풀이될 수 있는 원에 의해 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살은 원력수생하고 중생은 업력수생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지요.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원력수생을 한 분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지니고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받은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장익 : 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접한 불경이나 스님들을 만나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아주 깊고 넓은 대단한 가르침이 그곳에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배워

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넉넉함과 초월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인 저희들도 배울 점도, 얻을 것도 많다고 여겨왔습니다.

사회 : 두 분은 종교가 다르면서도 오랫동안 많은 교분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언제인지 알고 싶네요. 또 우리 종교계에서는 간혹 대립과 반목이 표출되기도 했는데 두 분은 개인적인 만남을 떠나 종교 간의 벽을 허문 만남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질적으로 보이는 불교와 가톨릭이 어떻게 하면 것처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법정 : 불교에서 만난다는 것을 흔히 '시절인연'으로 풀이합니다. 시절 인연이 오면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난다는 거지요. 시절 인연이란 이미 만날 씨앗이 싹터있지만 그것이 공간적, 시간적 계기가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친구간의 만남이라는 것도 종교적인 빚갚이나 의식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접촉될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만날 수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가 시절 인연이 와서 만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연구소가 됐건 다래헌이 됐건.

사실 주교님을 만날 때는 내가 중이라거나 상대방이 사제라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만나다 보니 어떠한 벽도 없습니다. 만나서도 종교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신도들에게도 늘 하는 소리인데 수행자로서, 사제로서 서로가 인간적인 교류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용해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독단주의나 혹은 배타적인 요소가 끼이게 되면 인간 교류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간의 벽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가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기 위해서는 독단적인 울

타리를 넘어서 모든 종교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윤리인 공동선을 가지면 용해가 됩니다.

몇해 전 로마에 갔을 때 당시 주교님의 안내로 몇 곳의 성지를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베네딕도 성인이 수행을 하던 수비아코, 또 제가 좋아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계셨던 아씨체를 둘러보면서 마치 불교성지 순례차 인도를 다닐 때의 성스러움, 옛 성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나라와 많은 것을 배우고 반성하고 덕을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종교 얘기 안해요. 그래도 다 이해하지요.

장익 : 종교 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종교의 독단과 독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구도적인 입장에 서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사람들을 구제하러 오신 것인데, 다시 말해 나부터 살자는 데 눈이 어두워져 있는 세상에 오히려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자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삶이라는 것을 알고 실행하도록 깨우치기 위해 오신 어른들인데 서로 싸워야 할 까닭이 무엇인지도 대체 모르겠습니다.

법정 :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오르는 길만이 옳다고 고집하게 되면 전체 히말라야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종파적인 종교를 통해서 보편적인 종교의 세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도 합니다. 인도의 간다가 주로 쓰던 비유에 이런 게 있기도 합니다. 종파적인 종교는 나무로 치면 한쪽으로 뺨은 가지인데 그 가지만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나무 전체와 줄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종파적인 벽이라든가 독단적인 요소만 극복한다면 모든 종교가 마찰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이슬람 분쟁지역은 그런 벽을 넘어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무시 되는 상황이 오는 파장이 아 니겠습니까.

장익 : 어떤 의미로는 자신이 가진 종교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갈지도 모른다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 길을 걷게 하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모든 종교를 싸잡아 그게 그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종교의 길을 가는 이상 자기 나름대로의 신심과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 하겠지만 남을 격하하거나 배척하는 일은 없어야지요. 그러면서도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만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법정 : 진짜 불교를 알려면 불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처에 얽매어 진짜 부처를 못보고, 보살에 얽매어 진짜 보살행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독신 수

행자들에게 그런 벽이 있는데 참선하는 사람은 오로지 참선이 최고요 염불을 하면 구제를 받지 못한다, 거꾸로 염불도 마찬가지로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신념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장익 : 21세기가 되면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다시 보아야 하는 숙제가 제일 큰 관심으로 떠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다원화된 세상에 살면서 불교처럼 아주 높은 경지의 종교를 보면 우리 스스로를 다시 알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길이 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울 안에 갇혀서 눈

을 안으로만 돌리면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신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론이 다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물론 큰 진통을 가져오겠지만 분명히 겪어야 할 것입니다.

법정 : 인도의 고전인 ‘리기도에다에 보면 ‘진리는 하나인데 현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건 자비건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가볍고 진리는 무겁고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과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해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말을 통해 뜻을 취하면 그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말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 뜻을 놓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열반경에 보면 ‘말에 따르지 말고 뜻을 따르라’는 말도 있지요.(다음호에 계속)

이 글은 1997년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교간의 이해를 돕고자 평화방송과 평화신문이 기획한 프로그램에서 법정 스님과 카톨릭 춘천교구장 장익 주교가 서울 법원사에서 만나 스무 해에 걸친 인연, 굶아터진 세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눈 이야기를 발췌하였습니다. / 정리·이규동

길상화 보살 49재 천도 발원문

글·법 정(法 頂)

달력이 바뀐 새해 첫날에 이렇게 예정에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길상화 보살님이 이 자리에 우리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인연치고는 아주 미묘한 인연이라고 여겨 집니다.

해가 바뀌면 노인들은 한 살이 줄어 들고 젊은이들은 한 살이 늘어납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각자 줄어드는 쪽인지 늘어나는 쪽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오늘 영가 길상화는 어느 쪽입니까? 줄어드는 쪽입니까? 늘어나는 쪽입니까? 해가 바뀌어도 그 나이가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은 해가 바뀌더라도 그 나이가 줄어들거나 늘

어나는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자리를 바로 지금 그 자리를 낱알이 살피면서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옛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디서 오고 죽어서는 또 어디로 가는지, 생종하처래 사향하처거(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고 또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

태어남이란 허공중에 한조각 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고 죽음이란 그 한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마침 텅 빈 허공 중에 문득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죽음이란 그 한조각 구름이 사라진 것과 같다고 했습니

다. 그렇지만 구름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고 죽는 일 또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그 무엇이 있어서 항상 뚜렷하게 밝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고요하고 잠잠해서 나고 죽음 생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몸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지금 이 몸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몸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 몸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집을 지은 것이 집이 사람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음이란 이 몸이 그 기능을 다했을 때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한쪽에 벗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무량겁을 두고 되풀이해 온 것이 이와 같은 중생의 살

림살이입니다. 앞이 지고 나면은 그 자리에 반드시 새 움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율동이고 생명의 질서입니다.

오늘 49재를 맞이한 길상화 영가는 이런 도리를 분명히 아십시오. 이런 도리를 알게 되면 나고 죽는 일에 초연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과일의 씨앗이 박혀있듯이 죽음 안에 새 삶이 있고 살아 있는 그 속에 죽음이 들어있더라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두고 사는 법을 배워가듯이 죽음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길상화 영가를 통해서 삶의 의미라던가 죽음이 무엇이라는 걸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길상화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49재의 이런 인연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자체를 생과 사를 거둬거둬 새롭게 음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 명심하길 바랍니다. 죽음이란

술과 담배와 인생

글 • 최중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생과 사 어디에도 메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 해가 바뀌어도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그 소식이 있습니다. 49일 동안 이 도량에서 스님들과 신도들과 친지들이 정성스럽게 제를 지내왔습니다.

이 제를 지내면서 길상화 영가는 평소에 듣지 못하던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만치 들어서 깨우친 바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절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귀의하

고 환희심을 일으킨 그 공덕으로 길상화 영가는 다생의 업장이 소멸되어 훨훨 떨치고 정도에 왕생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절이 존속하는 한 그 공덕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칭송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의 위력을 입어서 영가는 이 생에서 얽힌 인연들 다 거두시고 근심 걱정 다 놓으시고 정도의 안락을 누리십시오. 편히 왕생하십시오.

- 이 글은 2000년 1월 1일 법정 스님의 길상화 보살 49재 천도 발원을 운문하였습니다. 길상화 보살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법정 스님 영상 강연 & 법문

법정 스님 입적 9주기 해를 맞아 3월~11월 4째 일요일에는 법정 스님의 다시보는 법문으로 일요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정 : 11월 24일(4째 일요일)
(4째 일요일외에는 일요 가족법회가 병행됩니다.)
- 시간 : 오전 11시(사시예불 후)
- 장소 : 설법전

인생 육십을 환갑이라 하고 옛날에는 큰 잔치를 했다. 내가 실제 그 나이가 되었을 무렵 웬일인지 지난간 세월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랐다. 잘못된 것만 많고 잘한 일이란 하나도 없었다. 그때는 모질게 결단하고 바르게 한다고 했지만, 그러한 일일수록 대개는 더 잘못된 것이었다. 한마디로 헛살았구나 하여 그 착잡함에 마음 가누기가 어려웠다. 참으로 잠깐이었다. 백 년을 산다 해도 마찬가지로 아날까 싶다. 내 일찍이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이란 걸 알았더라면! 그 뒤 여러 해를 더 살았건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걸 보면 다 부질없는 생각인 듯하다.

내가 술을 끊은 것은 그해 일이었다.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자각지심에서였다.

내 술은 보통이 넘는 아주 소문난 술이었다.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딱 끊어놓으니 주변에서 독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실은 내가 독해서가 아니었다. 조금 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대로 술을 더 퍼마셨다가는 곧 죽을 것이 뻔한 일로 보였기 때문이다. 배가 아프면 병원을 찾아 약 먹고 며칠 뻔하면 또 술 먹고 하기를 10년을 하다 보니 속이 어떻게 헐었나 내시경 검사를 자주 해야 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끊고 잘 살아보자, 사람답게 사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런 작정으로 결단하고 단숨에 술을 놓아버린 것이다. 마음을 모질게 먹으니 미련이 없었다. 이상하리만치 동요됨이 없었다. 그야말로 원수 보듯 술이 미웠다.

한 달 가량 기운이 없어 비실비실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른바 금단현상이란 게 그런 것이었다. 한동안 지나 무력증도 없어지고 술도 잊어버렸다. 내가 언제 술을 먹었던가 싶게 말끔히 지난날을 잊어버렸다.

내가 담배를 끊게 된 것은 두어 해 뒤의 일이었다. 술을 떼고 나니 몸도 가볍고 우선 밥을 잘 먹으니 체중이 좀 늘었다. 평생을 50킬로그램 미만으로 살다 보니 나와 같은 사람들은 살찌는 게 소원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담배가 원수였다. 워낙 줄담배라서 두 갑이 넘어갔는데, 가

래가 문제였다. 보통 가래가 아니라 푼푼 뭉친 것 같은 기분 나쁜 것이었는데, 하루는 세수하다 탁 뺏어보니 선혈이 묻어나왔다. 늘 다니는 병원이 있어 갔더니 목 안에 충혈기가 있으니 담배를 반으로 줄여볼 수 없느냐고 물었다. 내 조부께서 환갑 전 해에 돌아가셨는데, 후두의 무슨 질환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병원 문을 나와 이화대학 시절의 제자를 만났다. 흔히 하는 습관이 사람을 만나면 먼저 담배부터 끄나 무는 것인데, 한 손에는 담배, 한 손에는 라이터를 꺼내 들었을 때 반으로 줄이는 것 보다 아예 끊는 것이 쉽겠다는 생각이 퍼뜩 났다. 담배를 갑 속에 집어넣고 라이터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서 끝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담배를 꺼내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생각조차 한 일이 없다.

사람이란 참 변덕스러운가 보다. 우리 집엔 언제부터인가 재떨이가 없어지고 손님 접대에도 술이 슬그머니 빠지게 되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아내인데, 과부 되는 생각을 덜하게 되었을 터이니 말이다.

담배를 떼고 나서는 무력현상이 6개월이나 갔다. 술을 떼고 나서는 한 달이었는데, 그러고 보면 담배가 더 독한 것 같다. 체중도 늘어 남들이 이제는 적당하다고 한다. 그 좋아하는 술 담배를 다 놓고 심심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도 심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별히 더 하는 일도 없건만 전혀 심심함이 없다. 그렇다고 좌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술자리에 안 가기에 시간은 더 남을 터이지만 심심함을 느낄 새가 없다.

나는 평생에 두 번 큰 반성을 했다. 한번은 환갑을 당하여 술을 끊을 때였고 한번은 오십 살 나이 때 큰 참회의 날이 있었다. 그 두 번의 반성 시간에 가장 절실하고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였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쓸데없는 존재라 할 만큼 그렇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럴 수가 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뗏뗏함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저 허공에서 하루만 살다 없어지는 날파리만도 못한 것으로 보였다.

욕심의 반성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다 쓸데없는 것이다. 내가 그런 것을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몇 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은 계산할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진짜 삶이 있는데 다 놓쳤구나 하는 심정이었다. 죽음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책 - ③

글 • 홍정근

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초조하고 당황스러웠다.

이 나이 되도록 늘 가슴에 품고 다닌 숙제가 있었다.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가 그때 죽음을 앞두고 생각할 적에 그중 한구석도 풀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헛살았구나! 내가 내 모습 보는데 한없이 불쌍했다.

먼저 오십 살 때 큰 반성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살아온 전체가 한눈으로 보였다. 또 내가 둘로 보이는 것이었다. 여기 앉아 있는 내가 있고 나한테서 떠나간 내가 또 하나 있는 것이다. 그 떠나갔던 내가 아득히 먼 곳에서 여기로 오는 것이 보였다.

그럴 무렵이었다. 한 찰나, 무의식 상태에서 생긴 일인데, 내가 살아온

과거지사가 또렷하게 다 보였다. 그때 보인 것은 다 내가 잘못된 일뿐이었다. 그 순간 또 신비로운 일이 있었지만 접어두고, 나는 그때 큰 참회의 눈물을 맛보았다. 그것은 큰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다. 나는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랑 말고는 모두가 헛된 것이다.

육십에 술을 끊고 또 담배를 끊고 하면서 죽음 앞에 당면하여 내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오십의 어떤 날 영적 체험 가운데 모든 것은 내가 다 잘못했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푹푹히 보았다. 무슨 일든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참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의 일일 것이다.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긴 하나, 허무한 것과 허무하지 않은 것이 분별되는 것만으로도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법정 스님이 불교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열정을 쏟게 된 계기는 많은 사람이 익히 알고 있겠지만, 1957년부터 가야산 해인사 선원에서 좌선을 익히면서 따로 아침저녁으로 장경각(藏經閣)에서 예불을 드리던 중 한 아주머니가 스님에게 고려대장경을 “빨래판 같은 것”이라고 말한 일이다. 고려대장경은 몽골군의 침입에 국난 극복이란 현실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나, 세월이 흘러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적어진 지금 부처님의 말씀과 지혜는 박물관 속의 골동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 충격을 받은 스님은 그해 여름 안거를 마치고 강원으로 내려가 경전을 배우고 익혔다. “어떻게 하면 부처

님의 경전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당시 스님에게 주어진 과제요, 화두였던 것이다.

법정 스님은 1960년 운허 스님의 부름을 받아 통도사에서 〈불교사전〉 편찬 작업에 동참한 이후 부처님 경전을 번역하는 일에 뜻을 함께한다. 1961년 해인사에서 어느 노스님이 가지고 있는 목판본 〈선가귀감〉을 처음 보고 밤을 새워 가며 베끼고 번역하여, 1962년 선학간행회 이름으로 출간하였다가 1971년 다시 고쳐 번역하였다. (선가귀감은 2003년 〈선가귀감-깨달음의 거울〉로 마지막 출간되었으며, 2006년에는 현각 스님이 영문 번역본 〈The Mirror of Zen〉으로 출간된 바 있다.)

1964년 동국역경원 개설에 참여했던 법정 스님은 역경위원, 편찬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장경 번역에 큰 힘을 쏟게 된다.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을 번역했으며, 1963년부터 불교계 언론인 대한불교신문(현 불교신문)에 경전 속 여러 설화를 연재하고, 법구경(法句經)과 백유경(百喻經)을 번역하였다. 그리고 <한글 대장경>에 수록했던 가장 오래된 불교경전 <숫타니파타>을 1974년 번역하여 출간했다.

법정 스님은 1999년 <진리의 말씀-법구경>을 다시 낼 때 서문 첫 부분에 “내 서가는 구도의 서책들로 두어 칸을 채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숫타니파타>와 <선가귀감> 그리고 <법구경>을 자주 뽑아본다. 고전적인 가치가 있는 책들이 다 그렇듯이, 펼칠 때 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찾게 된다. 그것은 거울과 같아서 항

상 내 속얼굴을 거기에 비춰볼 수 있다.”라고 쓰셨다.

법정 스님은 1975년 송광사 뒷산 불일암으로 거처를 옮겨 1976년 <선가귀감>을 다시 정리하여 정음문고판으로 출간하였다. 스님은 불일암에 주석하는 동안 많은 번역서를 출간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1977> <비유와 인연설화/1978> <지혜의 말씀-법구경, 백유경/1978> <말과 침묵-불교의 명언들/1982> <나누는 기쁨-보현행원품/1984> <진리의 말씀-법구경/1984> <신역 화엄경/1988> <밖에서 찾지말라-보조선사 법어/1989>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숫타니파타 강론집/1990> <불타 석가모니/1990> <인연 이야기/1992> 가 대표적이다.

번역서 가운데 1988년 출간된 '신역 화엄경'은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가운데 '보살문명품', '정행품', '십행품', '십회향품', '십지품', '여래출현품', '이세간품',

'입법계품' 등 주요 내용을 간추려 번역하고 주석을 단 책이다. 화엄종 근본경전인 '대방광불화엄경'은 흔히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설파해, 대승불교의 근간을 이루기도 한다. 화엄경은 법정 스님이 20대 후반 해인사 강원에서 처음 접하여 광대하고 무한한 규모에 압도당하여 20여 차례 읽고 독송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2002년에는 화엄경 가운데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53인의 선지식을 차례대로 찾아가 그때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선재동자의 구도 행각을 따로 떼어 <스승을 찾아서>라는 한 권의 책으로 꾸미기도 했다.

'숫타니파타'는 '말의 모음집'이란 뜻으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추려 간결한 산문 형태로 암송하기 쉽게 해 구전되어 왔는데, 법정 스님에 의해 번역되어 1974년 첫 출간 이후 몇 차례나 출판사를 옮겨 다듬어

지는데(정음사-불일출판사-샘터-이레),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초기에 속하는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스님은 강원도 오두막 한쪽 벽에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는 글귀를 붙여 놓고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아 함부로 지낼 수 없었다고 했다.

법정 스님은 1975년에서 1992년 초까지 조계산 불일암에서 홀로 지내면서 세월을 함께 사는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신문과 잡지에 내보내고 산문집으로 묶어낸다. 그리고 송광사 수련원장을 맡아 수련회의 기틀을 잡아 큰 호응을 얻었으며, 산문집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영혼의 언어로 일깨워줌으로 출간될수록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

불일암에 주석하면서 출간한 저서는 <무소유/1976> <서 있는 사람들/1978> <산방한담/1983> <물소리 바람소리/1989> <텃빈 충만/1989> 그리고 여행서는 <인도기행/1991>이 대표적이다.

<인도기행>은 1989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이루어진 인도 여행 기록을 적은 법정 스님의 유일한 여행 산문집이다.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인도 기행서처럼 단순한 여행 기록이나 가이드북의 차원을 넘어서,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에서 다시금 느끼는 불교 정신과 더 나아가 종교의 본질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담긴 법정 스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

1978년 발간된 <서 있는 사람들>은 1970년대 한국사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근대화에 뒤쳐진 농민들의 삶과 도시 노동자의 고단한 삶과 권력 앞에 무력해진 종교의 기능을 바

라본 40대의 법정 스님은 곧게 뻗은 대나무처럼 굴하지 않고 대항했다. 그러나 언론통제와 인권탄압의 칼날에 휘둘린 상처로 인해 송광사 뒷산으로 거처를 옮긴 스님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선량한 이웃을 생각하며 글로서 침묵의 땅에 봄의 씨앗을 뿌렸다.

수많은 신도와 일반인들이 불일암을 찾아와 청정한 수행을 하기가 힘들었던 스님은 1992년 4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대문도 문패도 없이 화전민이 살다가 버리고 간 강원도 두메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수류산방(水流山房)이라 명하고, 홀로 어떤 틀에도 간섭이 없이 자연과 더불어 순수하고 자유롭게 지냈다. 그렇지만 수행자로서 철저하게 시간과 계율을 지키며 새로운 자신을 형성해 나갔다. 스님은 불일암에서 지낸 몇 년보다도 훨씬 신선하고 즐겁고 복된 나날을 누릴 수 있어 고맙다고 표현했다. 단순하고 간소한 삶을 통해서 본

질적인 삶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코 홀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혼탁하고 살벌하고 메말라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가꾸는데 앞장섰다.

1991년 10월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해 듣고, 뜻있는 불자들과 함께 1993년 10월 프랑스 파리 길상사를 창건하였으며, 1993년 8월 우리 마음의 연꽃을 꽃피우자는 취지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주창하여 1994년 발족하였고, 1995년 김영한 여사로부터 대원각을 시주받아 1997년 길상사를 창건하는 등 강원도 오두막에서 도심으로 내려와 대중강연과 정기법문으로 대중과 함께 했던 것이다. 또 숲에서 지내며 보고 느끼고 생각한 당신의 삶의 뜨락을 누군가에 편지를 쓰듯 스스로없이 글로 풀어내며 대중과 함께 지냈다.

<버리고 떠나기/1993>는 불일암에 계실 때 쓴 글을 모아 강원도로 옮겨 출간하였고, 이후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1996> <오두막 편지/1999> <홀로 사는 즐거움/2004> <맑고 향기롭게/2006> <아름다운 마무리/2008>는 강원도 수류산방에 주석하는 동안 세상과 소통하며 출간한 저서이다.

그리고 대중강연과 대중법회에서 설한 법문을 정리하여 <일기일회/2009>와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2009> 출간했다.

류시화 시인이 스님의 글을 다듬어 낸 잠언집은 맑고 향기롭게 모임과 길상회 모임 등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엮은 <산에는 꽃이 피네/1998>, 여러 산문 중에서 계절과 자연에 대한 글과 편지글을 모아 엮은 <봄여름가을겨울/2001>, 법정 스님 출가 50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기획하여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명상적인 사진들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2006)가 있다.

그 외 법정 스님과 2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 책들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스님이 읽고 가까이해 온 책들을 기록한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2010>이 있으며, 법정 스님, 이계진, 이미선이 낭독하여 제작한 오디오북 <산에는 꽃이 피네/1999>과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성우 김세원의 목소리로 낭독한 <연꽃향기를 들으면서/2007>가 있다.

법정 스님의 글과 저서는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도 출간이 되는데, 영문판으로는 <The Mirror of Zen, 깨달음의 거울-선가귀감/2006>, <May All Beings Be Happy,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2006>, <The Sound of Water, the Sound of Wind: And Other Early Works by a Mountain Monk, 물소리 바람소리의 산문모음

집/2010>이 있다.

중국어판은 <無所有, 무소유/2005>, <山中花開, 산에는 꽃이 피네/2008>, <凡活著的盡皆幸福,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2008>가 있으며, 일본어판은 <無所有, 무소유/2001>, <すべてを捨てて去る, 버리고 떠나기/2003> <生きとし生けるものに幸あれ,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2007> <清く楽しく, 맑고향기롭게/2008>이 있다.

지금까지 법정 스님의 저서를 정리하여 나열하니 스님이 마치 문학가로만 비춰질까 걱정이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불교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준 역경가(譯經家)이면서 차를 좋아하는 다인(茶人)이었고, 정치사회 문제와 국토, 농업 문제 등 생태윤리를 두루 아우르는 사상가(思想家)였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본래자리인 선승(禪僧)으로 돌아가 차분하게 선(禪)의 자세를 취한 채 정치와 과학이 못하는 일을

종교로서 풀어내는 역할을 했다.

2010년 3월 11일(음 1월 26일) 법정 스님 입적 이후 유언 집행인과 본회 임원진은 기자회견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사막고 향기롭게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토록 해 달라. 그러나 그동안 풀어놓은 말빛을 다음 생애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는 유언장을 발표하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스님의 글을 읽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발표한 적이 있다.

'절판'이라는 갑작스런 소식으로 출판계는 잠시 혼란이 있었고, 스님의 책을 소유하려는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온라인 중고서점에서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짤개는 1~2년에서 길게는 9년여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출판

사들의 협조로 모든 서점에서 스님의 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하기로 협의하고, 남은 책들은 절지 및 소각하였다.

이후에도 사무국에서는 중간 유통업계가 창고에 보관하여 소소히 유통하는 책들을 찾아 매입하여 현재 보관중이며 회원사업과 공익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10년 전 "스님의 글을 읽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출판사와 남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지켜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스님의 글이 '말빛'이 아니라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위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스님의 저서가 가치를 아는 사람만 찾아 헤매는 골동품 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흔탁한 세상에서 맑고 향기로운 울림이 될 수 있는 현대의 경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11월 결연 대상자 - 이형태(가명)

그래도 내 가족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아내, 내 딸인데... 내가 보살펴야죠...” 무덤덤하게 말씀하신 어르신의 대답에서 가족에 대한 애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형태 어르신은 올해 69세로 심하진 않지만 하지 장애가 있어 걸을 때 절뚝거리며, 3년 전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고 당뇨와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어 건강하지 못합니다. 또한 어르신과 아내 모두 치아가 빠져서 음식을 씹지 못해 영양공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벅찬 어르신께는 보살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 딸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내와 딸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어 어르신

의 보살핌이 꼭 필요합니다. 아내는 10여 차례 입원하였으며 딸도 여러 차례 입원하였고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주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실수로 인해 화재와 같은 큰 사고가 날 만한 일은 모두 이형태 어르신의 몫입니다.

딸은 결혼하여 두 아이까지 낳았지만, 정신질환이 심각해져 남편과 이혼하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은 반지하로 방 1칸, 화장실 1칸, 부엌 1칸이 전부입니다. 다 큰 딸과 한방에서 생활하다 보니 서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없는 단칸방 생활에 갑갑함을 느끼고 밖으

로 나가려고 합니다. 조현병을 겪고 있는 딸이 집에서 떠나 거리를 배회하며 물건을 훔치는 등 문제가 생겨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는 딸의 질환이 자신의 문제로 기인했다는 죄책감에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지만 김영태 어르신에게는 함께 피부를 맞대고 살아온 아내이고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딸입니다.

어르신의 가정에 필요한 '마중물'

어르신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적 치료이고, 두 번째는 어르신 부부와 따님이 별도로 지낼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틀니를 지원

하여 어르신의 영양 공급이 충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치료에 대한 부분은 주민센터, 구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기적인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거와 치아 건강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큼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300만 원 그리고 어르신의 틀니 제작비용 각 160만 원이 필요합니다. 월세 25만 원, 부채에 대한 이자 40만 원, 보증금과 틀니 제작에 필요한 돈을 빼면 실질적인 생계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르신의 삶이 선순환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매월 40만 원씩 1년 48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글 • 원영 스님

오늘 이 자리는 생명살림대법회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법회입니다. 불교상 담개발원이 주도해 전국 30개 가까운 사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법회가 진행됩니다. 왜 생명이 주제가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년들 자살도 심각하지만 노년의 자살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 가만히 앉아 하늘과 나무를 바라보고 목탁과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다 보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 운문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제스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마포대교에 꼭 가보고 싶대요. 저는 갑자기 걱정이 들어서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었죠. 사제스님은 도반스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반스님이 한때 굉장히 힘들어서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마포대교를 갔는데 거기에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가슴에 와 닿는 글이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희망차게 생활할 때는 그 글귀가 와 닿지 않는데 어렵고 눈물이 날 때는 그런 글귀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제 도반스님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내가 뛰어내

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돌아 온 스님은 이후 출가를 했대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사실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24시간 내내 고통스럽고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밤이 넘어갈 때가 있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정말 모질고 독해야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런 마음가지였을 때 누군가 건네는 한 마디가 굉장한 힘이 된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에 실패해서, 사업이 망해서, 배신을 당해서 등 매우 많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하고 괴로워하죠. 행복한 이유는 거의 다 비슷하대요. 그런데 불행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따져보면 다 제각각이랍니다. 각자 나름의 슬픔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려 하구에 떠내려간 시체를 건져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건져지는 시체가 있고 몸이 많이 상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뛰어내리는 순간 발버둥을 치다가 물살에 살이 다 찢겨졌기 때문이라네요. 사인을 분석해보면 발버둥친 분들은 사랑에 실패했다든지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 자살한 것으로, 뛰어내리면서 후회를 한 경우라는 거예요. 찬물에 빠지자 정신이 바짝 들면서 허우적거리다 생을 마감한 것이죠.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조차 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수행법 중 하나로 부정관이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부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지 만 대체로 가난한 사람은 그냥 들팘에 썩든지 짐승이 먹든지 강 위로

띄우기도 하죠. 당시 스님들은 시체가 썩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육신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집착할 필요 없다고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닌 직접 보라는 겁니다.

한번은 부처님께서 2주 정도 선정에 드셨대요. 보름 만에 돌아와 법상에 앉아 돌아보니 자리가 송송 비어있는 거예요. 다들 어디 갔냐고 부처님께서 물으니 부정관 수행을 하다가 너무 무상하여 우리가 왜 살아야 하나며 몇몇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다른 수행자에게 가서 나 좀 죽여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걸 행하신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수행자가 자살을 하자 부정관 수행을 멈추게 됩니다.

이후 부처님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했고 그 가르침이 불살생으로 발전해 사람뿐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을 해치지 말자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방생도 그중 하나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가르침을 줍니다. 무상함을 강조한 불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 할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인생이 무상하다고 느끼곤 하죠. 그런데 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두려우니까요. 남의 죽음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이 되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죽음이 뒤통수에 있대요. 나이 든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서 보면 거리상으로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늘 죽어야지 생각하고 살지 않을 겁니다. 살다 보면 가끔 그

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지만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 짚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살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환갑잔치 잘 안 하잖아요. 오래 살고 장수하니까요. 스위스는 환갑이 되면 빨간 스웨터를 선물로 준대요. 남은 인생, 정열적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준다고 합니다. 60살이 넘으면 몸은 팔팔한데 ‘아휴, 난 늙어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알차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알차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까를 생각하십시오. 우울함, 분노, 화에 허덕이지 말고요. 제가 지금까지

죽고 싶다는 분을 대할 때마다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살펴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단 한 번의 미소, 포옹, 따뜻한 마음을 건네는 이런 것들이에요. 절에서 기도할 때는 이보다 더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에서 회사에서 절에서 모습이 달라요. 다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마음에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소를 갖고 웃을 수 있는, 농담도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미소 하나에, 웃음 하나에 삶이 바뀔 수 있어요. 24시간 슬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와 도반이 세상의 연을 다했을 때 슬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사이 사이에 미소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한 부족은 여성이 남성을 고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잘 웃는 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남자가 잘나도 권위적이고 딱딱하면 그 사람을 좋은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대요. 인디언 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웃게 만드는 이를 '웃음 부모'로 정한다고 합니다. 웃음이라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생명살림법회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욕망이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화창한 이 날, 자살 이야기로 암울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는 절대 암울한 것이 아닙니

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살림법회를 봉행하는 이유입니다. 자살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소중함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생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살의 마음을 가져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토닥여주고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법문은 9월 9일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2018생명살림대법회'에서 법사를 맡은 원영스님의 설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어느 인권 강사의 고백

글 • 송재영

나는 인권 강사이다.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만 인권강사이다. 가끔씩 인권강사이듯, 인권에 대해서도 가끔씩만 생각한다. 평소에는 인권이 절박할 일이 흔치 않다. 그러저럭 버틸만하기 때문일까. 보통 인권은 남의 이야기이다. 치사하지만 일상적으로 인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조건인 게 다 행이라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인권이 자신에게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나에게도 그랬다.

한때 평화운동을 하는 NGO단체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했다. 주로 전시장에서 평화와 관련된 이슈를 주제로 한 예술기획전과 관련 학술행사를 담당했다. 느지막이 출근해서

느지막이 퇴근하고, 점심때는 천천히 밥도 지어먹고, 골목길 컨테이너에 만든 허름한 술집에서 한 잔씩 걸치고 가는, 가난했지만 나름의 만족이 있었던 삶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만족한 삶은 충분히 만족할 만큼 오래가지 않았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꾸려지는 NGO단체를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한 한 이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대로 동료들을 자르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활동가가 사표를 썼던 일이 있었다. 자르려는 이유는 '눈빛이 마음에 안들어서'였다. 내가 인권강사를 시작한 것은 이 무렵 즈음이다.

난 인권의 절대성을 부정한다. 서구 역사의 산물인 천부인권이라는 종교

적 뉘앙스를 거부한다는 일차적 의미보다는, 인권이란 것이 불변의 명사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은 동사일 때만, 작동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종이에 적힌 권리의 목록인 인권은 아무런 힘이 없다. 인권은 사적이고 공적인 정치의 영역에서 깃발처럼 들어 올려지며 움직일 때에만 힘을 갖는다.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현실에서 무시될 때, 인권은 죽는다.

모두가 사무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겨울날, 우리들에게 인권은 없었다. 누군가에게 한창 뛰어다닐 아이들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10년이 넘게 연을 맺은 사회생활의 근간이었고, 누군가에게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갈 사회 첫 직장이었다. 월급은 아슬아슬한 최저임금이었고, 서로 통장 상황도 뻔히 알았다. 당장 한 달 후의 끼니를 걱정할 티였다. 당연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부조

리한 이유로 해고되는 동료의 인권을 지키고 싶었다. 겨울은 추웠고, 인권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수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 이들의 사직서를 읽으면 목이 막힌다.

그런데, 정작 나는 인권 강의의 현장에서, 생생한 인권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다. 이론적인,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인권을 주로 이야기한다. 스스로가 부정하는 명사로서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율배반 아닌가. 이러한 이유는 날것의 인권이 스스로에게 불편한 것도 있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권이 무엇인지, 강의를 나가기 전까지 알 수가 없다. 실은 강의 현장에서도 알 수가 없다. 인권 문제는 언제나 사적이고 세밀한 곳까지 깊숙이 자리 잡혀있을 테니까. 처음 본 강사에게 사적인 감정이 뽀뽀 묻어있을 '인권'이 필요한

자신의 사건을 들려주고 싶진 않을 것이다(만약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들려준다면, 난 그 무게가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크게 거리킬 것 없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한다. 돌려 돌려 말하며 그들에게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기억에 남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어떤 갈림길의 선택을 할 때, 인권이라고 불리는, 힘이든 권

위든 허상이든 상관없으니 그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무언가를 부여잡아 도움을 당당하게 요청하기를 바라며 말이다. 이기적이고 몸을 사리는 나는 직접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용감한 나의 옛 동료들이 그랬듯이, 누군가는 당신의 신음 섞인 외침을 듣고 인권의 이름으로 옆에 설 것이라 기대하며, 나는 B급 인권강사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에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여러 회원,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모임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면 종교, 종파에 상관없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전자 우편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 전화 : 02-741-4696

꽃 속의 사막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불리는 칠레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은 15mm 정도입니다.

이 사막의 일부 지역에는 무려 4,000년 동안 비가 내린 흔적이 없는 곳이 있을 정도로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천체 관측을 방해하는, 공기 중의 구름과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전

파망원경인 'ALMA'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어느 날, 선인장조차 자라지 않는 이 불모지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상이변인 엘니뇨 현상 때문에 아타카마 사막에 마법같이 비가 한바탕 내렸는데 당시 사막 일부 지역엔 하루에만 23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막에 바로 '생명수'가 더해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는데 비가 그치자 척박한 사막 땅 곳곳에서 파란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싹에서 줄기가 자라 꽃망울이 맺히더니 흙먼지뿐이던 사막이 분홍색 당아욱꽃으로 만발하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인류 관측 사상 가장 척박한 곳이라 여겨진 아타카마 사막이 꽃밭이 되었습니다. 땅을 뒤덮은 수백만 송이 꽃 때문에 사막의 흔적조차 보이

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 비가 내리지 않자 꽃은 사라지고 다시 황량한 사막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 생각되던 사막조차도 아름다운 생명을 품고 있음을 비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사막에 내린 비가 꽃을 피우듯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지 말고 어쩌면 당신에게도 어떤 아름다운 꽃씨가 어딘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

* 출처 : 따뜻한 하루

세계 일주 시작이 반

글 • 강인철

백두산을 출발하여 해를 따라 서역으로 실크로드와 히말라야를 넘고 동서양 6대주를 거쳐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까지 갔다. 더는 길이 없었다. 그러기 위해 일년에 한 두 달씩 짬을 내어 배낭을 꾸렸더니 이러구러 강산이 열 번 변했다. 그렇게 지구촌을 한 바퀴 돌아보긴 했으나 발길 닿은 곳보다 미지의 땅이 아직 더 많다.

시작과 끝이 없는 대자연, 세월의 더께조차 반짝이는 유적들, 원초적 삶의 원형과 인류의 도도한 잔영,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 이해하기 힘든 풍습과 언어 등 진땀 났던 경우도 많았지만 그런 놀라움들이 외려 에너지가 될 수 있었음은 다행이었다. 기억이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릿해

지기 마련이건만 지구촌나들이는 그렇지 않았다.

극지와 모든 나라들의 사계를 다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감히 세계일주라 말하기엔 부끄러움이 앞서지만 그래도 동서양 75개국의 지구촌사람들과 부대끼며 어울렸던 별일(?)들을 생각하면 스스로 대견할 뿐이다. 실크로드의 갈증, 징기스칸 로드의 미로, 안데스의 고소, 케이프타운의 탈진 등 어려움도 가지가지였지만 돌아보면 그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 덩이들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카레이스키의 유가다, 셸과 다와덴징, 나이로비의 충청도 아줌마, 카이로의 압둘 살레 등

모두가 고맙고 보고 싶은 얼굴이다. 그 중에도 파미르를 넘으며 길동무가 됐던 롬비니의 샴시 스님을 생각하면 '생전에 무슨 인연이 있었길래...?' 싶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지난여름 스페인의 안토니오군이 다녀갔다. 우리역사문화를 소개하며 '휘모리의 국악사랑 체험마당'에선 막걸리와 족발의 절묘함도 맛보았다. 그는 '꼬레아 남바르 완'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면서 제집에 와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함께 걸어보자고 했다. 줄잡아 8백Km 프랑스에서 피레네산맥을 넘으면 건강 체크도 해주므로 걱정 뚱! 이란다. 행복한 고민이다.

여행은 일상에서의 일탈이며 책으로 배운 것들을 체험해 보는 학습의 연장이기도 하다. 온 누리의 지구촌 사람들을 만나 함께 호흡하며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또 다른 기쁨을 얻는다. 그런 보람과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미래의 삶에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여행이 주는 최고의 보너스다.

한 번쯤 멋진 삶을 그려보고 싶다면 여행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승리를 꿈꾸며 살고 있다. 두려움과 망서림을 떨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 발로 뛰는 학습 <배낭여행>을 해 볼 일이다. 시작이 반이다.

강인철 •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에세이21」, 가을호로 등단했고,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 홍보대사, 서울시교육청 재능기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자 라이브 인 USA> (이름이 뭐길래) 등이 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글 • 김선에

평생 처음으로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그동안 늘 자유 여행을 다녔다. 그런데 산을 좋아하시는 어머니의 바람으로 캐나다 로키산맥 트레킹을 가려던 중, 그곳에는 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산악 가이드가 인솔해 트레킹을 하는 패키지여행을 선택했다. 어머니와 동생과 이모와 함께였다.

트레킹 팀 참가자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앞에 가는 사람들에 맞춰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속도보다 빨리 걸으니 힘이 들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내 속도대로 천천히 걸었다. 몸과 마음이 좀 더 편해졌다. 물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남에게 나를 맞추는 필요는 없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여행이었다.

이번 여행은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트레킹 팀 참가자들은 대부분 50대나 60대로, 경이로운 체력의 소유자였다. 오르막길에서 30대인 나는 꼴찌로 걷곤 했다. 여행 이후 더 많이 걸으며 체력을 기르고 있다.

트레킹 팀 인솔자님은 여행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들으며 부

끄러웠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말없이 오로지 걷는 데 집중해야 오르막을 오를 수 있었기에, 산행할 때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날 트레킹 장소는 라치 밸리였다. 아름다운 모레인 호수에서 출발해, 이끼 낀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길을 오르면 눈과 빙하가 덮인 암봉 10개가 웅장하게 펼쳐진다.

길 마지막에 있는 센티널 패스를 오르기 직전에 우박이 쏟아졌다. 우리는 기상 악화로 그냥 내려갈 팀과, 그래도 이 길을 오를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뉘었다. 나와 동생은 내려가는 편을 택했다. 워낙 추웠고 가파른 눈길에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정상에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가 가지 않은 그 길 끝에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고 했다. 그러자 정상에 갔다 온 분들 중 한 분이 웃

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해야는디.” 문득,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언젠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셨다. 그런데 걷는 도중 계단이 나타나자 할머니는 다리가 아파 혼자 기다리시고, 다른 사람들만 올라갔다. 할아버지는 계단을 오르자 나타난 저수지와 벚꽃 동산에 감탄하시더니, 할머니께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별거 없어.”
그 얘길 들었을 때,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씨가 아름답다 생각했다.

여행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잠시 침묵 속에서 홀로 산길을 걷던 때였다. 요호 국립공원 에메랄드 레이크 트레일을 내려오던 중, 나는 앞사람과도, 뒷사람과도 간격이 떨어져 혼자 걷게 되었다. 햇살 속에서, 층층한 침묵 속에서 푸르른 숲길을



기쁘게 걸었다.

다음 날 걸은 비하이브 트레일의 길썰에는 하얀색, 노란색, 하늘색 야생화와 푸릇푸릇한 침엽수가 가득했다. 한쪽 옆으로는 맑디맑은 청록색 호수가 펼쳐지고, 다른 쪽 옆으로는 눈이 덮인 산길을 걸었다. 그 호수가 우리의 맑은 마음을 비춰주는 것 같았다. 로키의 날씨는 우리의 마음처럼 변화무쌍했다. 비나 눈이 오다 맑아지고, 갑자기 우박이 내리다 다시 햇볕이 났다. 기뻐다 슬펐다 화났다 풀어졌다. 매 순간 변하는 우리 마음처럼. 하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맑은 호수처럼 잔잔하다.

정상에서는 에메랄드빛 호수가 내려다보이고, 물안개 낀 로키산맥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곳곳에 활짝 핀 연보라색 꽃이 기쁨을 주었다. 금방 내린 비로 더욱 생기 넘치는 풀잎. 나뭇잎

마다 영롱하게 맺힌 빗방울. 적갈색 줄기에서 뻗어나는 연두색 잎. 산은 아름다운 생명으로 가득했다.

라치 밸리에서 산행할 때는 야생 사슴을 만났다. 사슴들은 우리 가까이에서 유유히 거닐다 숲속으로 사라졌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나다라는 어떠한 개념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는 이래야 한다'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싱그러운 나무는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들과 신선한 공기를 선사하고, 새를 비롯해 수많은 동물에게 보금자리를 준다. 나도 나 자신으로 살면서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회원 2020년 탁상달력 발송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은 10월 말에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해주신 회원님에게 새해 탁상달력을 11월 중순경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10월 말일까지 후원이 없고 11월 ~ 12월 말에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은 2020년 1월 중순에 배송해드립니다.

매년 달력 발송 시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 분실되거나, 달력 고리나 스프링 파손, 길상사 달력과 중복된다는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부터 맑고 향기롭게 달력은 '탁상용'으로 제작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 모임에 후원하시면서도 개인 사유로 우편물을 수신 거부하신 회원님의 경우 달력 발송이 누락될 수 있으니, 달력을 받지 못한 경우 중앙모임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맑고 향기롭게 달력은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기에 1부씩만 증정하오니 너그럽게 이해 바랍니다.

길상사 벽걸이 달력은 길상사 창건 기념 법회(12월 15일(일)) 이후부터 길상사 종무실에서 수시로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새해 달력은 법정 스님 추모판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사진을 사용 허락해주신 이종승, 유동영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 참여

10월 12일(토)에 성북동 진입로에서 진행된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에 참여했습니다. 알차고 즐거운 바자회를 만들기 위해 매키투리 사무국에서는 봉사자들과 함께 먹거리와 녹색 장터 물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먹거리에는 반찬 나눔 봉사팀에서 각종 젓갈, 주전부리, 꼬치구이(떡, 소세지, 소떡소떡), 아이스티를 준비해주셨고 리폼 봉사팀과 사무국이 함께 친환경 화장품 및 물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매키투리 봉사자들 중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생활용품(연필꽂이, 향꽂이, 머그컵, 컵받침)에 그림을 그려 부스를 멋지게 채워주셨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다함께 웃으며 즐겁게 종교연합바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2019년도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에 도움을 주시고 참석해주신 봉사자와 회원 및 신도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매키투리 나눔과 이웃 사랑 실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사자 숲기행 진행

10월 18일(금),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봉사자들과 함께 법정스님의 발자취가 남겨진 오대산의 일월암 인근, 월정사, 지장암, 선재길 그리고 상원

사에 다녀왔습니다. 일월암 인근의 산에 올라 법정스님의 사상과 삶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월정사 참배 후 지장암으로 향했습니다. 지장암은 비구니 스님들께서 수행하는 암자로 깔끔하게 정리된 도량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암주 스님의 따뜻한 환영에 친정을 찾아온 딸들처럼 편안함을 느끼며 삶을 사는 지혜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함을 지닌 지장암을 뒤로 한 채 선재길을 따라 상원사로 향했습니다. 조금씩 비가 내렸지만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은 오대산의 절경에 선재길을 걷는 동안 내내 이곳 저곳에서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선재길을 따라 상원사 참배를 마치고 금일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19년 봉사자 숲기행은 법정스님이 출가를 결심하여 가고자 했으나 눈으로 길이 막혀 가지 못한 월정사와 스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일월암 인근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습니다. 2020년은 법정스님께서 입적하신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법정스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매키투리 함께 살아가기"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키투리 건강한 삶을 사는 일에 뜻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매키투리」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에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 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매키투리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매키투리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매키투리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48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 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쉼 없이 할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 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키투리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매키투리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매키투리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매키투리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 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5일(화) /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법정 스님 영상법문) : 24일(일) / 오전11시/길상사 설법전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세심당, 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11월~2월은 김장 나눔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 /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 / 수시 모집 중 / 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9일)/ 오전 8시 30분 /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6, 23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 / 오후 12시 / 세계일화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 / 오후 1시 30분 / 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국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법정스님의 법문 영상, 잠언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 play스토어 → 맑고 향기롭게 검색 → 다운로드 → 설치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많은 활동과 홍보(추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 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과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태극권, 형의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정 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중·고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비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같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 해주세요.

정기후원 /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광주모임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경남모임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매일 오후 2시~4시
- 장소: 장소: 극락전
- ※ 금강경 축원은 따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11월 2일(토) 오후 6시 ~ 8시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
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선포 받습니다.
- 수능 기도자를 위한 촛불 기원 있습니다.

공덕주 길상화 보살 기일

- 일시: 11월 3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11월 9일(토) 오후 8시
~ 11월 10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동안거 입재

- 일시: 11월 11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11월 11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11월 14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2020년도 입시기도 회향

- 일시: 11월 14일(목) 오전 8시 40분
- 장소: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11월 20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11월 27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1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 기도	11월 2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길상화 보살 기일	11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1월 9일	오후 8시	극락전
동안거 입재	11월 1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1월 1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1월 14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1월 2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11월 2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청소년방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길상사 템플스테이

지금, 걱정없이 떠나고 싶으면
여기, 템플스테이
당신의 마음이 여유롭기를

#길상사#명상#힐링#자연#여유#여행

매월 셋째, 넷째 주말
길상사 홈페이지 참조

